



01

UN 사무총장,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말레이시아 결핵환자 방문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세계 결핵의 날을 기념하며, 말레이시아 공식방문 이틀 일정 중 호흡기내과 병원을 방문했다. 부인 유순택 여사와 Datuk Seri Liow Tiong Lai 보건장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나와 내 아내는 두 명의 환자에게 얼마간의 약을 전해줬다. 나는 굉장히 겸허함을 느꼈고, 동시에 그들이 아주 친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치료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다. 한 여성은 진실로 행복하다고 내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강한 희망의 기운을 전해 주고 싶었다. 그들 뒤엔 그들을 돌보아줄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반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결핵환자들이 이처럼 통합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제 연대의 강화를 촉구했다.

02

Stop TB 파트너십과 글로벌 펀드 공동체 대표단, 결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다!



Stop TB 파트너십과 글로벌 펀드의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환자 공동체 대표단이 함께 모여 파트너십과 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자는 데 동의했다.

공동체 대표단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를 앓고 있거나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글로벌 펀드의 투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공동체 대표단과 Stop TB 파트너십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펀드와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결핵 관계자 그룹을 확대하고 에이즈 환자에게 결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인식을 심어 주는데 힘쓰게 되었다.

이 공동사업은 결핵, 다제내성 및 결핵-에이즈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펀드 이사회 기간 동안 결핵 워크숍 및 세션을 주최하며 전략적 사업실행 및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협동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펀드의 투자가 결핵과 연관된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 생명을 구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3

SADC회원국 장관들이 남아프리카 지역 광부들의 결핵사망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한 선언을 지지

15개 SADC(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참여국의 보건 및 노동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지역의 대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업 분야에서 결핵에 관한 선언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2012년 8월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열릴 기념식에 모이게 되는 15개 SADC 국가수장들이 서명하게 될 것이다.



매년 남부 아프리카의 광부들의 약 3~7퍼센트 가량에서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의 광산업은 주변국, 특히 레소토, 모잠비크, 스와지질랜드와 짐바브웨 등지, 남아공의 시골지역에서 온 이민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장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광산에서의 결핵 퇴치를 위한 지역적 대처가 가져다 줄 확실한 경제적 실익에 대해 인식하고, 결핵을 앓는 모든 광부들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심각한 영향에 노출된 광부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결핵퇴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좀 더 강화된 파견 활동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04

방치되고 있는 아동 결핵

생후 15년 내의 아동들은 의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적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이 그들의 결핵 증상과 신호를 알지 못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다. WHO와 Stop TB Partnership은 보다 질 높은 훈련과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결핵을 앓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심각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WHO Stop TB국 담당자 Dr Mario Raviglione는 “우리는 결핵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1990년과 비교해서 사망률은 40% 줄었고 수백만의 생명을 구해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수의 아이들이 뒤쳐졌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기 결핵은 감춰진 유행병으로 남겨져 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동 환자의 가족들은 가난한 생활로 결핵에 취약하고 결핵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성인들이 결핵 진단을 받고도 아이들의 전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Stop TB Partnership 사무총장 Dr Lucica Ditiu는 “매일 200명 가량의 아이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 아이들의 결핵 예방 치료 제공에 하루에 3센트도 안 되는 비용이 들고, 병의 완치에도 하루 50센트 정도가 든다”며 “예방이나 치료를 제공하려면 그에 앞서 결핵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해야 하고,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가 함께 힘을 합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